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4 | 규원가, 인현왕후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시험 범위인 ‘규원가’와 ‘인현왕후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두 작품 모두 여성의 한(恨)과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단다. (가)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나)는 폐비가 된 후의 덕행과 인고의 세월을 다루고 있지.



그렇군요. (가) ‘규원가’에서는 자연물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헛갈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구나. ‘매화’는 피고 지는 것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보여 주고, ‘실솔(귀뚜라미)’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란다.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지.



아하, 감정 이입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나) ‘인현왕후전’에 나오는 ‘큰 개’는 어떤 역할인가요? 뜬금없이 개가 나와서 놀랐어요.

그 ‘큰 개’는 인현왕후를 지켜 주는 신이한 존재란다. 잡귀를 물리쳐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데, 이는 주인공이 하늘의 보호를 받는 유덕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 전기적 요소야.



그런데 선생님, 인현왕후가 상감께서 보내신 ‘어찰’을 받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하게 쫓겨났으니 화가 나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인현왕후의 성품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야. 임금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감히 임금의 글을 받을 수 없다는 겸손과 유교적 도리를 지키는 모습이란단다.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럼 두 작품의 화자와 인물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의 화자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운명론적으로 체념하거나 거문고로 시름을 달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반면 (나)의 인현왕후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근신하며 도덕적 우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두 인물의 태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편집자적 논평도 챙겨 봐야겠죠?

그렇지. (나)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해.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비교, 서술상의 특징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4 | 규원가, 인현왕후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더니 】([]: 부모님이 고생하여 나를 기르실 때 높은 벼슬아치의 짝은 못 되어도 군자의 좋은 짝(이상적인 남편)을 만나기를 바램. 이상적 소망과 현실적 소망)

【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이자 부부의 연분으로 남편을 만남.)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였더니

【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달이 베올에 북 지나듯 】([]: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시간이 베를 북이 지나가듯 매우 빠르게 지나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세월의 빠름을 강조)

【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쏘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리 】([]: 고운 얼굴은 사라지고 밍살스러운 모습으로 변함. 늙고 초라

해진 자신을 한탄하며,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는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조적 태도. 수원수구)

【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야유원”은 화자에게 임의 부재 원인을 짐작하게 하여 원망과 상실감을 심화하는 공간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 남편이 기생집에 새 여자가 생겼는지, 호사스러운 차림으로 나가서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없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원망. **작품의 주제 의식(원망의 정서)**을 묻는 문제에서 ‘삼삼오오 야유원과 백마금편을 언급하며 남편의 행적을 묘사하는 것은, 관습적인 자책에서 벗어나 고통의 원인이 남편의 방탕한 생활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쏘냐**(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설의법으로 드러냄.)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든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 남편과 거리가 멀어 소식조차 알 수 없으나,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하루와 한 달이 매우 지루하고 길게 느껴짐. 임에 대한 야속함과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이중적 감정)

【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고**(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옥창에 심은 매화는 임이 부재한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화자가 임을 기다려 온 긴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 없다 】([]: 매화가 피고 지는 것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표현함. 계절의 변화(눈, 비, 봄 경치)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시름은 깊어만 감. 자연물과 화자의 정서가 조응하거나 대비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을 기다리는 시간의 경과와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이 상(床)에 울 제(가을밤 귀뚜라미(실슬) 소리에 외로움과 슬픔이 심화된. 감정 이입의 대상)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빗겨 안아

접련화(接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거문고(녹기금)를 연주하며 시름을 달래려 함. (녹기금: 화자의 근심을 달래주는 매개체이자 정서를 대변하는 소재). **시상 전개에 따른 심리 변화를 묻는 문제에서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빗겨 안아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입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입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재회의 기쁨을 예감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거문고 연주는 시름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뿐, 갈등 해소나 재회의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는 듯]([: 거문고 소리가 마치 소상강의 빗소리나 이별한 학의 울음소리처럼 슬프게 들림.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비애감을 형상화함.)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여 굽이굽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꿈에서라도 입을 보려 하지만 잎 지는 소리와 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방해물에 대한 원망)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입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견우와 직녀는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지만, 자신은 입을 전혀 만날 수 없음. 견우직녀 설화와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함.)

난간(欄干)에 비껴 서서 입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쉼다**(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설움을 투영.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화자의 비극적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화자의 소외감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새소리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자신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은 없을 것이라 한탄)

아마도 이 입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가) 「규원가」

핵심 정리

■갈래: 규방 가사, 내방 가사

■성격: 원망적, 한탄적, 고백적

■주제: 임에 대한 원망 및 그리움

■특징

- 대구법, 설의법, 은유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견우직녀 설화, 소상야우 등을 인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 계절의 변화와 자연물(매화, 실솔 등)을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묘사함.
- 운명론적 태도(삼생의 원업)와 현실에 대한 체념이 나타남.

이해와 감상

「규원가」는 조선 시대 사대부 부녀자가 지은 규방 가사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늙음을 대조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 제도 속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한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크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갈래복합 04 | 규원가, 인현왕후전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
逑) 원(願)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
(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
나 있어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
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
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
하여
봄바람 가을 달이 베울에 북 지나듯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
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임이 날 꺾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아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나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든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
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
이 시름 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빗겨 안아
접련화(接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누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여 굵이굵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
期)치 아니커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비껴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쉼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
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나)

이력저력하는 동안에 가을이 되어 칠월을 당하여
본가에서 @송이를 들여오거늘, 후께서 보시고 척연
히 안색을 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 궁녀가 꿇어
문자오되,
“낭랑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태연하시더
니 요즘 서러워하심은 어떤 일이옵니까?”
후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내 이리 죄를 얻어 백옥무하하니 시운만 한탄할

뿐 무엇을 서러워하리오마는, 내 대내에 있을 때 본가에 기별하여 송이를 들여오면 두 대비 전에서 즐겨 진어하시던 고로, 위하여 수라에 쓰더니 오늘날 송이를 보니 마음이 저절로 아픈 듯하다.”

말씀하며 따라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가 모두 흐느껴 울고 우러러보옵지 못하였다더라.

창호와 사벽을 바르지 않으시고, 넓은 동산과 집의 풀을 매게 아니하므로 사람 한 길만큼이나 자라 인적이 끊겼으니 귀신과 망령이 날고, 저물면 예사 사람과 같이 다니니 궁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니 하루는 난데없는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오니 거동이 추한지라, 궁인들이 쫓아도 또 들어오니 후께서 이르기를,

“그 개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도 가지 않으니 기이한지라. 내버려두어 그 하는 양을 보라.”

하시매, 궁인들이 밥을 먹이며 두었더니 10여 일 뒤에 새끼를 세 마리 낳으니 매우 크고 모진지라. 이후는 날이 저물어 망령의 불과 도깨비의 자취가 있으면 네 마리의 개가 함께 짖어 대므로 잡귀가 급히 물러가 종적을 감추니 그로 인하여 집안이 편안한지라. 대개 무지한 짐승도 도움이 있거늘 하물며 신민이라, 후 폐출하신 뒤로 조정에선 기뻐하는 소인이 많으니 도리어 금수만도 못하리다.

후가 천성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요동하시는 바가 없으나, 매양 급한 풍우에 뇌성을 두려워하사 청사에 계시다가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시니 날마다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시어 오라버님 민정자의 딸이 여덟살이라 데려다가 두시고 『소학(小學)』과 『열녀전(烈女傳)』을 가르치시고 길쌈을 가르치시어 소일하시고, 신세 구차하고 황락하시되 일찍이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이 천연 자약하시니, 좌우가 더욱 마음속으로 탄복해 마지않았다더라.

부원군의 삼년상을 마치시매 후께서 더욱 애처롭게 서러워하시어 옥체가 자주 편찮으시더라. 본가에서 색깔이 있는 옷을 들여오되 받지 아니하시고 이르기를,

“죄인이 어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리요. 무명으로 의복 금침을 만들도록 하라.”

하시어,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들여오니 입으시고 보물과 진찬을 기꺼이 아니하시더라.

이때 상감께서 민후를 폐출하시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여 곤위에 오르게 되어 궁중의 조하를 받게 하니, 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중이 이렇

듯이 됨을 서러워하고 장 씨의 참혹한 처사를 분하게 생각하되 조정 안에 어진 사람이 없으니, 누가 감히 말을 하리오. 그옥이 분한 마음을 품고 조하를 마치니, 희빈의 아버를 옥산 부원군으로 봉하고 빈의 오라비 장희재로 훈련대장을 제수하시니 백성들이 한심히 여기고 기강이 흩어져 팔도의 인심이 산란하여 별 소문이 다 도니, 대개 예로부터 성제명왕(聖帝明王)이라도 한번은 참조하는 말을 귀담아듣기가 쉬운 법이거니와, 숙종 대왕과 같이 문무를 겸하신 어진 임금도 장 씨에게 이토록 침혹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하심은 실로 의외라.

이듬해 경오년에 장 씨의 생자로 왕세자를 책봉하시니, 장 씨 앙양자득하여 방약무인하니, 이리므로 발악을 일삼아 비빈을 절제하며 궁녀를 엄형하여 포박한 말과 교만한 행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궁중에 기강이 없어지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장희재는 탁란하고 음험하여 팔도에 장난하되 감히 말할 이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듯 삼사 년이 지나가매 천운이 순환하여 즐거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닥쳐오고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리라. 구름이 점점 걷히매 태양이 다시 밝아 오니, 성총이 깨달으시어 민후의 억울하심을 알고 장희빈의 요사스럽고 악독함을 깨치사 의심이 가득하시니, 대하시는 기색이 전과 다르시고 조정 소인들이 후 삼촌 숙질을 다 처벌하시라고 날마다 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렀으나, 상감께서 마침내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리므로 민씨 일문이 보존함이 되니라.

장 씨 그옥이 임금의 뜻을 짐작하고 크게 두려워 오라비 희재와 더불어 꾀하여 갑술년에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일으킨 옥사를 다시 일으켜 무수리를 죽이고 폐비에게 사약하려 하니 번이 크게 나매, 상감께서 짐짓 그 하는 양을 보시고 궁중 기색을 살펴 망연히 간사한 사람의 흥모를 깨달으사, 즉시 옥사를 뒤집으시고 비위만 맞추는 신하들을 다 물리시고, 옛 신하들을 불러 쓰실새, 갑술년 삼월에 대전별감이 세 번이나 안동 본가 궁을 둘러보고 들어가더니, 4월 9일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폐하신 중궁의 무죄하심을 밝히시고, 별궁으로 모시라 하시며, ⑥어찰을 내리사 상궁 별감과 중사를 보내시니 후께서 사양하사 이르기를,

“죄인이 어찌 외인을 접하며 감히 어찰을 받으리오.”

하시고, 문을 열지 않으시매, 연 삼 일을 별감이 문밖에서 밤새고 문 열기를 청하되, 마침내 오동치 않으시니 이대로 복명한대, 상감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또한 답답하시어 예조 당상으로 문 열기를 청하게 하나,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니 예조와 승지, 국체 그렇지 않음을 아뢰나, 듣지 아니하시므로 상감께서 민부(閔府)에 엄지를 내리시어,

“이는 임금을 원망하는 일이라. 빨리 문을 열게 하라.”

하시니, 민부에서 황송하여 서간을 올려 무수히 간하되, 끝내 열지 않으시므로 또 며칠 후에 이품 벼슬하는 신하를 보내시어 문 열기를 청하니 중신이 말씀을 아뢰되, 사체 그리 못하신 줄로 누누이 밝히고 개문을 청하니 후께서 궁녀를 시켜 전하여 이르기,

“죄인이 천은을 입어 인명이 살았은즉, 이 집이 죄인의 뼈를 감출 곳이라 어찌 국명을 받자오며 변화히 사람을 인접하리오. 사명이 여러 번 내리니 더욱 불안하여이다.”

사관이 절하여 명을 받잡고 재삼 간청하여 민부에 두 번 엄지를 내리시니, 후의 큰 오라버님 되시는 판서 민 공이 황송하여 간절히 권하여 겨우 ‘바깥문만 열라’ 하시어 4월 21일에야 비로소 대문을 여니,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의 키와 같은지라. 왕명으로 일꾼을 시켜 풀을 베며 들어가니 풀 이끼가 섬돌 위에 가득하고, 먼지와 창호를 분별치 못하니 사관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외당을 깨끗이 치우고 사관과 군사들이 들어앉으니, 쓸쓸하던 집이 변화한지라. 궁인들이 문틈으로 보고 일희일비하며 눈물을 흘리며 즐겨 하되, 후는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어 오히려 불안히 여기시더라.

바깥문이 열리매 민씨 일가에서 가마가 수없이 들어가고 바깥문이 열렸음을 아뢰니, 상궁 넷을 보내 사 어찰을 내리 오시니, 상궁이 왔음을 아뢴대 중문을 열지 아니하시니, 반나절을 밖에 있는지라. 그사이 별감이 길에 있었으니 연하여 어찰 보심을 청하는지라. 후의 오라버님 내인이 연하여 국체 불경하심을 누누이 간권하시고 체면을 불안히 여기시어 문을 열라 하시니, 상궁이 섬돌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 청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러러보오매, 용모 복색이 초췌 무색한지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남을 깨닫지 못하여 애통하게 우나, 후께서는 두 눈

을 내리뜨시고 못 보시는 체하고, 어찰을 드리니 북향 사배하고 얼마 후 퍼 보시니 만지에 가득한 사연이 다 전과를 뉘우치고 시운을 슬퍼하시며 대내로 드심을 청하신지라.

-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1.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기다리는 시간의 경과와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와 임의 대화 형식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화해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교차 서술하여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창에 심은 매화’는 임이 부재한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화자가 임을 기다려 온 긴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② ‘청등’과 ‘녹기금’은 임이 없는 빈방에서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과 시름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는 기물들이다.
- ③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은 잠 든 화자를 깨워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려던 기대를 무산시키는 방해물이다.
- ④ ‘약수’는 견우직녀 설화 속의 ‘은하수’와 달리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부각한다.
- ⑤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는 화자의 비극적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화자의 소외감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3. (나)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논평을 덧붙여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간체 형식을 차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고백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과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의 긴박한 전개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액자식 구성을 통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사건의 인과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전기적 요소를 배제하고 현실적인 사건만을 다루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현왕후가 송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과거 대비 전을 모시며 효를 행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의 처지를 슬퍼했기 때문이다.
- ② 인현왕후가 색깔 있는 옷을 물리치고 무명 의복을 입은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근신하겠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다.
- ③ 궁인들이 '큰 개'를 쫓으려 했으나 인현왕후가 이를 말린 것은 미물이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왕후의 자애로운 성품을 보여 준다.
- ④ 상감(숙종)이 민후의 무죄함을 밝히고 별궁으로 모시라 명했으나 인현왕후가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억울하게 폐출된 것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 ⑤ 장 씨가 오라비와 함께 옥사를 일으켜 폐비를 해하려 한 것은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선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기 때문이다.

5.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삼생의 원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인현왕후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시운' 탓으로 돌리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인다.
- ② (가)의 화자는 '꿈'을 통해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희망을 갖지만 (나)의 인현왕후는 '어찰'을 받고도 복위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
- ③ (가)는 자연물인 '매화'를 통해 임의 지조를 예찬하고 있으며 (나)는 '송이'를 통해 임금의 변함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장안유협 경박자'를 비판하면서도 그리워하지만 (나)의 인현왕후는 자신을 내친 '상감'을 끝까지 원망하며 마음을 닫고 있다.
- ⑤ (가)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고난도 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여성 문학 및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의 고난은 흔히 '가부장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형상화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부재나 횡포, 혹은 제도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인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유교적 부덕(婦德)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비극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의 차이는 당대 여성들이 겪었던 내면의 고뇌와 사회적 압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 ① (가)의 화자가 '스스로 참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책하는 듯하나 그 이면에 남편의 횡포에 대한 억울함과 한탄이 깔려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나)의 인현왕후가 폐출된 상황에서도 ‘소학’과 ‘열녀전’을 가르치며 소일하는 것은 유교적 규범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화자가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나)의 인현왕후가 ‘죄인이 어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당시의 사회적 질서 안에서 규정된 규범을 의식한 발화이다.
- ④ (가)의 화자가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라며 임을 탓하는 것과 달리 (나)의 인현왕후는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가 ‘녹기금’을 타며 시름을 달래는 행위와 (나)의 인현왕후가 ‘큰 개’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는 모두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능동적인 대응 방식이다.

7. (가)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생의 원업’과 ‘월하의 연분’을 떠올리는 부분에서는 현재의 불행한 처지를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원인을 과거의 업보와 인연에서 찾으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 ②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에서는 결혼 생활 초기에 화자가 겪었을 심리적 긴장감과 남편을 섬기며 느꼈던 불안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삼삼오오 야유원’을 드나드는 남편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남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행적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④ ‘옥창에 심은 매화’가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자연의 순환과는 무관하게 흘러가 버린 자신의 젊음에 대한 허무함과,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이 투영되어 있다.

- ⑤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 빚겨 안아’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임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재회의 기쁨을 예감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에서 자연물은 주로 도학적 이념을 표상하거나 안빈낙도의 흥취를 돋우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규방 가사에서 자연물은 여성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변모한다. 화자는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자연물의 속성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내면의 고독과 한(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① ‘봄바람 가을 달’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번뇌를 잊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② ‘자취눈’과 ‘긋은비’는 화자의 내면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 현상으로, 화자가 도학적 이념을 탐구하는 배경이 된다.
- ③ ‘실술(귀뚜라미)’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고독한 밤을 보내는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바람에 지는 잎’은 화자에게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남편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 ⑤ ‘초로(풀 이슬)’는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상징하며, 화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9. (나)의 사건 전개 양상과 인물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궁녀들은 폐출된 왕후가 안색이 변하며 눈물을 흘리자 그 영문을 묻고, 왕후의 사연을 들은 후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② 인현왕후는 거처에 날아든 ‘귀신과 망령’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으며 안식을 찾는다.
- ③ 조정의 소인배들은 인현왕후가 폐출된 것을 기뻐하는데, 서술자는 이를 두고 ‘무지한 짐승’보다 못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인현왕후를 옹호한다.
- ④ 인현왕후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며 사가에서도 ‘죄인’의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탄복을 자아낸다.
- ⑤ 장 희빈과 그 세력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새로운 옥사를 일으켜 위기를 타개하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다.

10. (나)의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현왕후가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본가에 알리는 수단이고, ㉡는 숙종이 인현왕후의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보낸 선물이다.
- ② ㉠은 인현왕후에게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고, ㉡는 인현왕후가 복위되어 궁으로 돌아갈 명분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 ③ ㉠은 인현왕후가 시어른들에게 효성을 다했던 증거물로서 기능하고, ㉡는 숙종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인현왕후에게 용서를 구하는 개인적인 편지이다.
- ④ ㉠은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는 그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화해의 징표로 작용한다.
- ⑤ ㉠은 인현왕후가 본가와와의 인연을 끊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는 인현왕후가 조정의 정치적 문제에 다시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봄바람 가을 달’, ‘자취눈’, ‘삼춘화류’, ‘가을 달’, ‘실술’ 등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세월의 흐름과 그에 따른 화자의 깊어가는 한과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

- ② [매력적인 오답] 화자의 독백체로 이루어져 있어 대화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대비하는 내용이 아니다.
- ④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한탄하고 있으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명령형 어미를 통해 대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정답] ⑤

‘새소리’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화자의 서러운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지 활기찬 모습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소외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매화가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흐르는 세월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을 타는 행위는 고독과 시름을 달래려는 의도이므로 적절하다.
- ③ 화자가 꿈에서 임을 보려 할 때 잠을 깨우는 원망스러운 대상들이므로 적절하다.
- ④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있어도 만나지만 화자는 약속에 가려 소식조차 끊겼음을 한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①

‘대개 무지한 짐승도~도리어 금수만도 못하리로다’나 ‘실로 의외라’와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비판하거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서간체 형식이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 주를 이룬다.
- ③ 장면 전환이 빈번하거나 몽타주 기법이 두드러

지게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액자식 구성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⑤ ‘큰 개’가 등장하여 잡귀를 물리치는 등 전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4. [정답] ④

인현왕후가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임금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감히 임금의 명을 받들거나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겸손과 자책의 태도 때문이다.

- ① 송이를 보고 시어른께 진어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
- ② 죄인이 어찌 색깔 있는 옷을 입겠냐며 무명옷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 ③ 기이한 개를 내치지 않고 두어 보라고 하는 모습에서 넉넉한 성품을 알 수 있다.
- ⑤ 임금의 뜻을 짐작하고 두려움을 느껴 옥사를 일으켜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5. [정답] ①

(가)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이라며 현재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시운만 한탄할 뿐’이라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나)의 인현왕후는 ‘어찰’을 받고도 “죄인이 어찌 외인을 접하며 감히 어찰을 받으리오.”라고 말하며 사양했으며, (가)의 화자는 꿈에서조차 임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매화는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며 (나)의 송이는 효심을 환기하는 매개체이다.
- ④ (가)의 화자는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표현한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지만, (나)의 인현왕후는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고 있다.
- ⑤ (나)에는 반어적 표현을 통한 인물 풍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6. [정답] ⑤

(가)의 거문고 연주는 시름을 달래는 소극적인 행위이며 (나)의 ‘큰 개’를 용인하는 것 역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는 능동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자책의 형식을 빌려 입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비극적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 ②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여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비극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 ③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나 죄인으로서의 도리를 언급하는 것은 당대 규범을 내면화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원망의 대상을 입으로 설정한 (가)와 달리 (나)는 다른 이를 탓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정답] ⑤

화자가 거문고(녹기금)를 타는 행위는 외로움과 시름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다. 화자는 거문고 소리를 '소상야우의 대 소리'나 '별학의 울음'에 빗대어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며,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연주를 들어 줄 사람이 없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입과의 갈등이 해소되거나 입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재회의 기쁨을 예감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현재의 고통을 전생의 업보와 연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운명론적 태도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심리 기제가 작용한 것이다.
- ② '살얼음 디디는 듯'이라는 표현은 시집살이의 조심스러움과 긴장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 ③ 기생집(야유원)을 드나드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답답함이 드러난다.
- ④ 매화가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인지하고, 입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지루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8. [정답] ③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투영한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내면의 고통과 한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귀뚜라미 소리는 화자의 긴 한숨과 눈물을 자아내는 기능을 한다.

- ① [매력적인 오답] '봄바람 가을 달'은 세월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빈낙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자취눈'과 '긋은비'는 겨울과 여름의 긴 시간 동안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심화하는 배경이지 도학적 탐구와는 무관하다.

- ④ '바람에 지는 잎'은 화자의 잠을 깨우는 '원수' 같은 존재로 묘사되므로,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 ⑤ '초로'는 화자의 눈물이나 덧없는 처지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동경한다고 볼 수는 없다.

9. [정답] ②

제시된 지문에서 인현왕후가 거처하는 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 '귀신과 망령이 날고' 하는 흉흉한 곳으로 묘사된다. 궁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움직이지 못했으나, 이후 '큰 개'가 들어와 잡귀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인현왕후가 귀신과 망령을 수호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큰 개'의 도움으로 잡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 ① 왕후가 송이를 보고 눈물 흘리자 궁녀가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들은 후 '좌우가 모두 흐느껴' 울었다.
- ③ 서술자는 짐승(개)도 주인을 돕는데 신하들이 폐출을 기뻐하니 '금수만도 못하리로다'라고 직접 비판하고 있다.
- ④ 인현왕후는 폐출된 후에도 원망 없이 지내며, 의복을 검소하게 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 좌우가 탄복했다.
- ⑤ 장 씨와 장희재는 갑술년에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켜 상황을 뒤집으려 시도했다.

10. [정답] ③

㉠ '송이'를 보고 인현왕후는 대내에 있을 때 두 대비에게 진어했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한다. 이는 왕후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어찰'은 숙종이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폐비의 무죄함을 밝히고 별궁으로 모시라는 비망기를 내린 후, 직접 왕후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어찰에는 '전과를 뉘우치고 시운을 슬퍼하시며 대내로 드심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숙종의 사과와 복위 요청이 담긴 글이라 할 수 있다.

- ① 왕후가 궁핍함을 알리기 위해 송이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어찰은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

다.

- ② 송이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은 맞으나 ‘영화로웠던 시절’보다는 ‘효를 행하던 기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찰 역시 단순한 명분 제공을 넘어 왕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사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 ④ 송이는 갈등 유발 원인이 아니다.
- ⑤ 송이를 통해 본가와 의 인연을 끊으려 한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목민연배포공제